

개교90주년 기념 및  
숭대극회 제37회 가을정기공연

誤

解

(LEMALENPENDU)

원작 : A. Camus  
기획 : 오정근  
연출 : 박경

- 일시 : 1987. 9. 10~11 (6 시30분) 12 (3 시, 6 시)
-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제 1 공학관 3 층)
- 주최 : 숭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후원 : 숭실대학교 써클연합회
- 협찬 : (주) 중외제약, (주) 원창물산, 중소기업은행



## 격려사

총장 김치선

개교 90주년 연연이 흘러온 숭실의 맥속에 연극예술창조의 협로를 땀으로 수놓는 숭대극회에 격려의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문명의 타성에 잠겨 퇴화해버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며 작품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배우면서 보다 참신한 사고로 우리에게 혁명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하는 숭대극회의 37회 가을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폐기로 열연할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에 버금가는 참예술의 경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 「극회장의 변」

극회장 김선중  
(국문과 3년)

오랜 시간, 藝의 탑을 쌓기에 전념해온 숭대극회가 성황당에 돌을 던지는 떨리움과 소박한 바램으로 또하나의 막을 젖히게 되었습니다. 실존철학의 귀두이며 소설가인 A. 까뮈의 작품 “오해”를 낳으매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 합니다.

뫼비우스의 띠 같은 이론의 테두리를 과감하게 뚫고 나와 자기표현에 대한 끝없는 연역적 물음의 답을 실제적 행위로써 구하려 합니다. 더불어 숭실인들과의 교감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삼십육방으로 둘러쳐진 창살을 조아대다가 비록 날개가 퇴화된다해도 부리가 다 닳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전설에도 없는 새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간이야기로 입술을 조악거릴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력을 공연준비에 쏟아 놓겠습니다.

## 작가및 작품연구

Albert Camus (1913~1960)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알제리의 가난한 농업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급비생이되어 대학까지 진학, 스승 그르니에의 영향으로 문학과 철학을 지망했다. 폐결핵으로 철학교수가 되려던 꿈을 포기하고 신문기자가 되었으나 독일군의 침입으로 알제리로 돌아가 오랑시의 사립학교 교사생활을 했다. 한편으로는 연극분야에도 정열을 쏟아 많은 작품을 각색, 연출표는 자신이 직접 무대에 서기도했다. 『이방인』, 『페스트』, 『전략』 등을 발표하여 195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근본사상은 〈반항과 부조리〉였다. 과연 그의 부조리란 무엇인가.

모든것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꾸준히 자기의 의미를 구하는 반항적 행위 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단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반항적 인간의 근본사상이며 인간의 가치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이 휴머니즘은 부조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사상에서 출발하여 까뮈가 도달한 결론인 것이다. 사르트르와 교우하고 비밀저항조직의 유력지인 『콩바』의 주필생활을 한 그의 작품으로는 전기한 외에도 『정의의 사람들』, 『계엄령』 등의 회곡과 『시지프스의 신화』, 『독일인에의 편지』 등의 에세이가 있다.

### ●작품세계

자살로 인도하는 문학대신에 〈삶의의지〉를 내부로부터 외치는 문학이 까뮈의 문학이다. 소설의 배경적 무대로서, 혹은 서정적인 대상으로서, 신화적인 물체로서 풍토로서, 성격으로서 들은 까뮈의 우주를 특징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돌은 사막을 구성하는 메타포이며 상징이고, 신화이며 핵이다.

돌이 문득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하나의 사막(해변)이 만들어지고 그속에서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이, 침묵과 언어에의 충동이 맞부딪치며 열을 발하는 곳이 까뮈의 세계이다. 사막은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 무죄의 땅이다. 곁에 드러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독과 혈벗음과 원초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제공하는 이 사막은 잃어버린 천국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감정과 정신으로 물든 상상의 공간임을 알수있다.

까뮈특유의 무대는 빛 ↔ 돌 ↔ 침묵의 세가지요소가 한데섞여서 구성된다. 까뮈의 작품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여름』 이번 공연작품 『오해』는 까뮈가 추구하는 정신에 있어, 서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세상의 잔혹성이란 어쩔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잔혹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다. 의식을 제거해 버리거나 아니면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방법뿐이다.”

“저 정상을 향한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한인간의 가슴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까뮈의 작중인물들은 고통과 잔혹성에 반항하여 그것의 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잊어버린 천국을 찾아 도전한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경우 죽음에 이르거나 그것을 잊어버린채 살아간다.

까뮈는 다만 제시할뿐 원래가 정당화할 수 없는 성질의것인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시지프스의 신화』는 까뮈의 소설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인지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한정되고 필사의 것이며 반항하는 사고의 산물이다. 그것은 그것자체로서 합리적 이성의 무용성을 증명한다.

부조리란? 부조리는 동시에 하나의 사실을 뜻하면서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취하게되는 명철한 의식을 뜻한다. 사실로서의, 원초적인 조건으로서의 부조리란 바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말한다. 원초적인 부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분리를 나타낸다. 통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 그리고 인간정신과 주어진 자연이라는 극복할길없는 이원성 사이의 분리, 영원을 갈구하는 인간의 충동과 그의 존재가 가진 〈한정된〉 성격 사이의 분리, 인간의 본질인 근심과 그의 노력이 보여주는 허영사이의 분리가 그것이다. 죽음·진실들이나 존재들을 하나의 원칙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복수성, 현실이 담고있는 지각할수 없는 어둠·우연, 바로 이런것들이 부조리의 諸極點들이다. 부조리의 인간은 자살하지 않는다. 부조리의 인간은 반항속에서 자기자신을 긍정한다. 부조리의 인간은 설명하는 것이아니라 묘사한다.

숭실대 극예술 연구회 기획부

## 기획의 변



기획  
오정열 (사학 3년)

승능으로 생각하며 막걸리 잔에 코를 기울이던  
실성해 버린 미친놈의 굿쟁이들.  
대사를 외우려 전봇대에 머리님께서 찢을수 있는  
극성에 찬 후배를 기다리는 선배들의 마음속엔  
예전에 미처 탐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고  
술, 술, 술 너만을 가까이 접하고 만다.  
연, 놈을 몇백번, 몇천번을 부르짖으며  
구르고 또 구르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회의와 실의, 눈물과 담배연기도 함께 맛보았던 우리, 자! 이제  
사사로운 감정이나 착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멋진  
랑데뷰를 한번 하자꾸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외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 학교당국, 후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아주신 회사측, 그리고 재단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숭실대 극예술 연구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 그리고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천태만상 온누리 천하태평, 중건배우왕돼지, 꼭껴, 바람난 아줌마, 하얀돌, 영감 수고들 했다.

## STAFF



무대감독  
전희식 (산공3)



무대장치  
김문규 (회계2)



음향효과  
김현순 (독문2)



조명  
박경민 (기계2)



분장  
류재연 (독문3)



무대미술  
송미경 (독문2)



의상  
황금실 (국문3)



홍보1  
권형진 (무역)



홍보2  
손진용 (산공1)



소품  
박준희 (사사2)



섭외  
홍덕태 (사학1)



진행  
권태수 (경영1)

## 연출의 변



연출  
박경근 (전자2)

들개들

난지도, 분뇨처리장  
생존의 갈등과 투쟁  
에고이즘의 절대자  
차라리 부서져야 할 몸들이었다.  
「너」에서 「나」를이 아닌  
「나」로부터의 「너」  
이 어지러움 속에서  
작은 「만남」의 「깜」을 찾는다.

흘러가는것은 시간뿐

한없이 녹아 스며들  
우리 육신들  
이 어두움 속에서  
이 헛갈림 속에서  
만나 보려는 너희에게  
조용히 낫게 외쳐본다.  
그러나 거침없이

사랑한다고.....

## CAST 변



어머니  
왕 동 미 (사사3)

그것은 일종의 습관으로, 그를 죽일것  
을 강요당했다.  
카단 오해를 간직한채  
.....기다린다.....



네시선과 내시선의 부딪침.  
뽀드득  
앗! 누군가의 영혼이 부서져내리고 있  
다.

말타  
백 로 라 (국문1)



장  
김 장 우 (법학2)

여보세요! 거기 당신 혹시 내 사랑을  
보았습니까?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나의 혼란과 미로의 상태는 그 누구의  
해명으로서가 아닌 나의 방황으로서 그  
렇게 그렇게.....  
이제는 나혼자서도 충분히 설수있을 만  
큼 “백이면 백, 누구나 하는일을 이쪽  
도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을 거  
예요”

마리아  
최 정 화 (무역2)



늙은하인  
노 경 신 (무역1)

도울수 없습니다.  
당신이 홀로서기를 바랍니다.

本社・工場・서울特別市江西區登村洞六三七番番番番  
源昌物産株式會社

F 電  
A X 話

六六六六九九五五二二六九五五〇〇二一八七〇〇一〇五八一一四七一四六一三  
○二一一一一一五五一〇一〇一七一七一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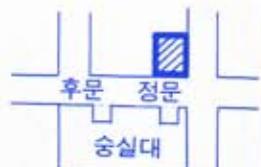
A  
**armotec®**  
SPORTS WEAR 아모텍



814-0625

르네상스중실을위한 휴식처!

모든 중실인의 식량창고



상 도 상 회를  
아시나요!



815-8694

그윽한 분위기와

낭만이 있는 곳



# 건강개발 42년...

우리는  
늘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이 누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지닌 이들에게  
우리가 다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전란,  
그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이웃들과 같이 해 오면서...

치료제 생산 42년  
그 외길로의 정진을 계속해 온  
중외제약.

우리의 집념은  
이제 의약품의 생산으로 그치지 않고  
우수 의료기기의 공급과 생산에 앞장 설  
(주)중외상사(주)·중외기계와  
함께 일함으로서  
의약계의 숙원인  
종합기업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인간존중의 터전 위에  
우리의 의지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중외제약



## 공연연보

回	年 講	作 品 名	演 出	回	年 講	作 品 名	演 出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커 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커 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 (신입생 환영)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 (신입생 환영)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태석 作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태석 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박양진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박양진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센마트 作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센마트 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 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 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키는 당나귀 키"	김용학 作 (신입생 환영)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키는 당나귀 키"	김용학 作 (신입생 환영)
26	1982년 6 : 12, 13	"끼리글라"	A. 까워 作	26	1982년 6 : 12, 13	"끼리글라"	A. 까워 作
27	1982년 10 : 7, 8	"해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 作	27	1982년 10 : 7, 8	"해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 作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베디"	피터웨커 作 (신입생 환영)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베디"	피터웨커 作 (신입생 환영)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센마트 作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센마트 作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 作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 作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作 (신입생 환영)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 作 (신입생 환영)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作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作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 作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 作
32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32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레스카 作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레스카 作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리·깁센 作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리·깁센 作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웨커 作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웨커 作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 作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 作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 作 (신입생 환영)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 作 (신입생 환영)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창립 23주년  
1987.8.1

## 어린이들처럼 신선한…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가웁지요.

엄마따라 은행에 온 우리 꼬마가 한층 신선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가까이 있는 저희 중소기업은행을 찾아 주세요.

귀하의 자녀만큼

신선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